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10과 삼위일체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술어가 아니다. 이것은 교리와 신학 술어이다. 이 술어 자체를 성경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술어를 창안하게 한 사상은 성경에 확실히 있다. 그런 사상을 간단하게 표현할 방법을 찾아 만든 술어가 삼위일체라는 말이다. 이 문제를 공부할 때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자.

삼위일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서방교회의 테르툴리아누스(Quintus Septimius Florens Tertullianus, 160~220)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말을 헬라어로 사용한 사람은 수리아의 안디옥 감독인 테오빌로스(Theophilus)로서 168~183 어간에 ‘트리아스(τριάς)’라는 말을 썼고, 라틴어로는 테르툴리아누스가 트리니타스(trinitas)라는 말을 220년경에 처음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1. 여호와 하나님은 세 개체로 계신다.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개체로 계시는데, 이 세 개체는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여기 이름의 주어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복수(複數)이다. 그러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단수(單數)이다. 이런 기록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다. 이미 9과에서 공부한대로 이 이름은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여호와라는 한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세 개체가 다 한 여호와이신 것이다.

삼위일체라는 술어에 삼위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일체라는 말에는 오해가 많은데, 그중에는 일부러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여기 일체라는 말은 몸통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동등하다는 뜻이다. 그런 예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부부일체(夫婦一體)라는 말이다. 이 말이 군사부가 한 몸통이라는 말이 아니고 부부가 한 몸통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 권위와 인격이 동등하다는 뜻이다.

삼위일체도 개체는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이지만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뜻이다. 즉 세 개체가 다 자존하신 분이라는 뜻이다.

2.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복수이다.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엘로힘(אלוהים)은 복수이다. 단수는 엘(אל) 또는 엘로하(אלה)이다. 구약성경에는 엘로힘이 약 2,550번 이상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복수 존재로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 확실하다.

[창1:26,27]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로 불렀다. 그 “우리”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 누구인지는 거듭남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하여진다.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침례이다.

[롬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는 새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확인하는 예식인데, 이 예식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집행한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초에 새로운 피조물인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때는 아직 구원할 일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밝힐 계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중 하나”라고 하신 것이다.

[창3:22]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 우리 중 둘, 우리 셋이 모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복수 존재이심을 분명히 계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모시고 있는 천사들을 포함한 표현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창세기 3:5에 기록하였다. 마귀가 여자를 꾀면서 한 말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다. 천사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이런 사실에 의하여 창세기 3:22의 “우리 중 하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악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한분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무도 오해할 수 없이 분명하다.

3.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하셨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창조하는 일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결코 어느 누구도 가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까닭은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 있다면 그들은 다 여호와이실 수밖에 없다.

[사44: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꿰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 말씀은 창조는 오직 여호와 홀로 하시고 함께 한 다른 이가 없었다고 분명히 밝힌다.

[행14:15]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요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계시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에 함께 하신 분으로 여호와이심에 틀림없다.

[시104:30]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욥33:4]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창조에 함께 하신 사실을 분명히 계시한다. 그러므로 성령도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외에 아무도 함께 창조한 자가 없는데 창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이심이 확실한 것이다.

[렘10:10,11] 오직 여호와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11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런 창조주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며 다 한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를 복수(複數)로 계시하셨다.

[전12:1]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에 “너의 창조자”가 복수이다. “창조하다”라는 말 “바라”의 남성 복수 분사인데, “보레이카(בֹּרֵאִיךָ)”이다. 단수는 “보레카(בֹּרֵאִי)”이다.

창조자를 복수를 계시한 것은 한 번뿐이지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학자들이 이것을 필사자(筆寫者)가 잘 못 기록한 것일 거라고 여러 이유들을 들이대지만 성경은 일점일획이라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보존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전도서의 이 말씀은 창조자 여호와께서 복수로 계시는 분임을 분명히 계시한다. 그 분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되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다.

4.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구원은 재창조이다. 처음에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사

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창조주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자이신 말씀이라 불리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43:11,12]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호13:4]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성경 중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다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창조와 구원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창조는 없는데서 있게 하는 것이고, 구원은 창조되었다가 죽어 없어지게 된 것을 다시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스스로 계신분만이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생명 자체이시며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그가 하시려고 하면 없는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실 수 있으시며,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시다.

위의 말씀들은 구원하는 일에도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계시하셨다.

그런데 창조하시는 일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하는 일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셨다.

[딤후1:1]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딤후2: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딤후1: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딤후2:10]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딤후3: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구주라고 계시한다.

[딤후2: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딤후3:6]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벧후1:1]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벧후1: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벧후2:20]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엮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벧후3: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상의 말씀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계시한다.

[요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롬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한다.

구원에 있어서 삼위께서 함께 일하신 사실도 성경은 계시하였다.

[히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상의 말씀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다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들이다. 그런데 성경 이사야 43:11과 호세아 13:4에는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단언하였다.

성경은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께서 창조와 구원을 함께 하신 사실을 명확하게 계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지만 그 존재성에 있어서 삼위가 다 스스로 계신 것을 일체 곧 동등하신 분이 라는 사실을 계시하셨다. 그것을 교리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훈이나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삼위가 자존했느냐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 우리는 나타난 일만을 연구하여 깨닫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

[욥11:7]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신29:29]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삼위일체라고 할 때 삼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개체를 말하고, 일체는 그 세 분이 다 여호와 즉 자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